

최근의 국제석유 시장동향과 유가전망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美國産 WTI(美國 텍사스産 中質油) 원유는 年初보다 20%나 올라 20\$/b선이 되었다. 또 OPEC(석유수출국기구) 중심의 주요 7개油種 평균바스켓價格도 OPEC목표치인 배럴당 18달러선에 달했다.

전문연구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금년 하반기에 13~18\$/b 사이에서 92년경에 15~20\$/b 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 최근의 油價動向

1. OPEC 減産合意로 상승세

OPEC(석유수출국기구) 13개 회원국은 88년11월 제 84회 總會에서 회원국 산유쿼타를 하루 1,850만배럴로 하향조정했다. 이러한 新쿼타는 89년 상반기동안 준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지난 해 줄곧 약세를 면치 못했던 原油가격을 배럴당 18달러의 목표가격 수준으로 회복시켜 보려는 안간힘이었다.

88년 8월의 이란·이라크전쟁 휴전 이후, 사우디를 중심으로 페르시아灣岸산유국들이 모두 增産함에 따라 원유가격은 한때 배럴당 10달러 이하까지 급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OPEC의 新쿼타(減産) 합의 및 그 이행의 영향으로 인해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서서히 회복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89년

3월에 들어서면서 오름세가 뚜렷해짐으로써, OPEC의 기준원유 7개油種의 평균가격이 목표치인 18\$/b전후로 까지 회복되었다. 이 수준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하는 상승폭이어서 소비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는데, 상승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먼저 수요면에서, 최근 세계적 경기호황의 지속과 아울러 석유가격 약세로 말미암아 석유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88년 들어 IEA(국제에너지기구) 집계는, 작년 4/4분기 석유수요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잠정1.6%에서 확정 4.6%로 대폭 상향 수정되었다.

작년 가을에 OPEC회원국들이 增産경쟁을 함으로써 소비국 석유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가 많아진 관계로 재고량은 그다지 늘지 않고, 오히려 국제시장에서의 공급핍박감이 생기기도 했다. 즉, 휘발유와 등유·경유 같은 석유제품의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특히 美國에서는 이러한 輕質油 공급을 위해 重質油분해설비가 풀가동에 가까운 상태를 계속했다.

또한 최근의 휘발유無鉛化 및 휘발유蒸氣壓기준인하 등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치강화로 말미암아 輕質原油에 대한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 공급면에서 보면, OPEC의 산유량은 88년 4/4분기에 2,230만b/d이던 것이 89년 1/4분기는 1,950만b/d로까지 280만b/d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하여

금년 2월 21일 非OPEC산유7국(* 소련·중국·이집트·말레이시아·멕시코·오만·앙골라)의 합의는, 금년 4, 5, 6월중 석유수출량을 5% 감축함과 동시에 원유생산을 29만b/d 감축키로 한 것이어서 OPEC의 유가회복 전략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또 작년 여름부터의 油田事故 빈발로 인해 英國領北海유전의 산유량이 전년대비 30%(약 80만b/d)나 대폭 감소함으로써 輕質原油의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졌고, 금년 3월 말의 알라스카灣에서 유전사고로 원유流出이 일어난 것도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 短期的요인으로 油價 不安

앞에서 본 수요·공급면에서의 변화 가운데 생산/소비/재고에 대한 정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석유시세는 일종의 「맹목적 비행」을 계속, 단기적요인에 따라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시장이 되었다.

특히 88년초에 OPEC가 기도했던 「18\$/b 고정가격 유지제」가 완전 붕괴한 이래, 세계 원유가격은 美國 WTI원유와 英國의 브렌트原油 그리고 아랍·에미리트國의 두바이原油 등 이른바「페이퍼原油」(Paper deal Oil)의 스파트가격에 연동하여 결정되었다. 최근에는 뉴욕商品去來所(NYMEX)에서의 WTI원유의 先物去來價格이 세계석유가격을 선도하고, 투기적 거래가 더해져서 유가상승 무드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원유가격 전망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

현재 OPEC산유량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이란이 증산에 나서 산유新쿼타를(1,850만b/d에서) 100만b/d가량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 호조건에 힘입어 수급은 거의 균형상태이다. 최근 가격회복에 자신감을 얻은 사우디아라비아는 4월분 유럽/美國/日本으로의 원유판매량을 나라별로 20~30% 정도 삭감키로 통보하는 등 감산체제 유도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3개월간은 OPEC의 대폭증산으로 인한 油價하락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6~19달러 선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현재 WTI나 브렌트 같은 輕質原油와 비교적 重質인 中東產原油와의 가격차가 큰 것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불만이며, 차제에 유가회복 18\$/b선을 목표로 하기 보다도 현재의 유리한 시장여건을 이용해

유종간 가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격결정방식을 재편성함으로써 결국 석유수입액의 확대를 피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PEC로서 최대문제는 오는 6월의 총회에서 금년 하반기 산유쿼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이란 같은 일부 강경파는 현 쿼타를 그대로 유지하여 감산체제하에서 배럴당 18달러, 또는 그 이상의 高價格을 추구하고자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등 여러 산유국들은 회원국별 쿼타확대요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15\$/b 수준을 상회하는 상승무드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新쿼타를 100만~150만b/d 확대키로 결정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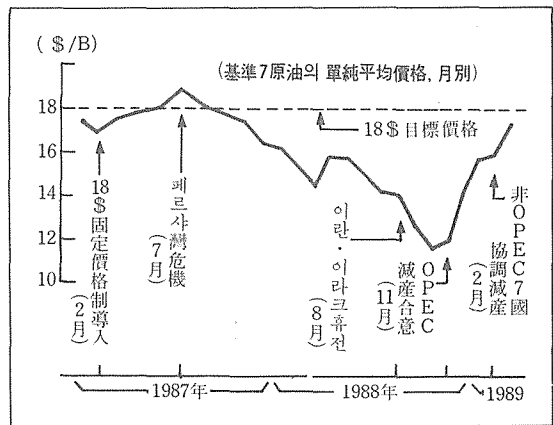
더욱이 이라크로서는 지금 건설중인 아라비아橫斷파이프라인(TAP)이 오는 9월 완성되면 수출능력이 115만b/d나 늘어나기 때문에 自國 산유쿼타의 확대를 강력요청할 것이 틀림없다. 이라크는 누적채무가 600억~800억달러이므로 파이프라인 건설비를 石油收入으로 지불키로 결정했다는 점을 보아도 금년 4/4분기에는 어쨌든 增産에 들어 갈 가능성이 많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생산능력확대(회복)을 서두르고 있는 이란으로서도 쿼타확대를 요구하게 되어 OPEC 감산체제가 또다시 중대시련을 맞게 되는 것이다.

3. 금년 평균 16\$/b선, 내년봄 弱勢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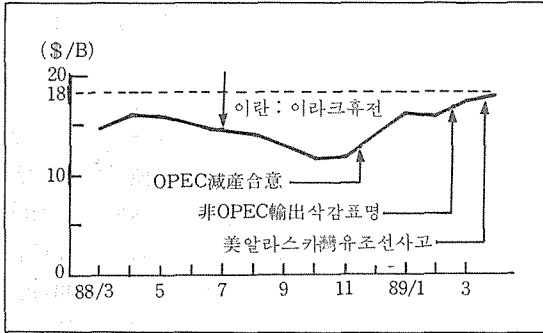
또 금년 여름 이후에는 그동안 사고로 인해 산유량이

OPEC基準原油價格의 推移



〈註〉 기준 7개 유종 : 사하람/ 미나스/ 보니 라이트/ 아라비안라이트/ 두바이/ T. J. 라이트/ 이스무쓰

原油바스켓價格의 推移



줄었던 英國 北海유전도 생산회복이 될 것이고, 노르웨이도 新油田조업개시로 말미암아 작년말 보다 40만~50만b/d나 산유량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에 석유수요는 요즘의 유가상승세 및 인플레이 염려에서 오는 금리인상정책으로 인해 美國을 중심으로 수요신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여러 관점에서 볼 때, OPEC의 기준원유가격은 금년 하반기에 배럴당 13~18달러 사이에서 현재보다도 약세기조로 들어서고 연평균으로 보면 배럴당 16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시장의 투기성향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국면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 해도 좋다. 그래서 금년내에 OPEC결속체제가 와해되지 않는다 해도 내년, 즉 1990년 1/4분기 이후에는 결국 배럴당 15달러 정도로 약세가 될 듯 하다.

한편, OPEC의 생산질서·쿼타준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非OPEC측과의 감산협력이 실현됨으로써 「산유국 카르텔의 부활」이 예상된다는 일부 견해도 없지 않다.

이 점으로 보면, 이라크가 산유협정 체제내로 복귀한 것과 석유수요 신장세 및 非OPEC측의 생산둔화 등으로 인해 OPEC은 80년대 후반의 最惡期를 빠져나온 것이 확실하며, 원유가격도 中期的인 상승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非OPEC과 非페르시아灣 산유국들이 풀가동 가까이 생산을 계속하는 한편, 낮은 코스트의 석유자원이 풍부한 페르시아灣國들은 50~60%의 낮은 가동율을 불평하고 있다. 페르시아灣 산유국의 생산쿼타 확대 요구를 어느 정도 맞춰주어(非OPEC을 포함한) 가동

을 불균형현상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OPEC産원유수요가 금년의 2,000만b/d 정도에서 적어도 2,300만~2,400만b/d 수준으로 까지 신장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수요가 것처럼 늘어났다 해도, 2,400만b/d의 OPEC産원유수요가 된다면 사우디등 페르시아灣산유국들로서는 低價格에 의한 시장판매량 확대 보다도 오히려 減産·高價格에 의한 석유收入확대로 정책을 다시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4. 중·장기적으로는 高油價政策 유지

만일 자유세계 석유수요가 요즘처럼 연간 100만b/d 정도씩 증가(연간 2%)를 계속한다면 1992년경에는 OPEC가 바람직한 생산(수요)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中東지역의 큰 정치변동이 없으면 페르시아灣 산유국의 증산지향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OPEC 기준원유 가격은 배럴당 15~20달러 범위내에서 등락하면서 서서히 상승세를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하튼 지난 15년간의 油價는 배럴당 40달러 가까이 오르거나 10달러선으로 하락하기를 경험하므로써 산유국과 소비국 쌍방간에 가격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合意」가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86년의 유가폭락사태 이후 석유輸入량이 급증하고 있는 美國은 레이건정부에 비해 신임 부시정부가 보다 「가격안정 지향적」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배럴당 15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유가약세가 되면 美國內 석유산업의 타격이 클 뿐 아니라,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같은 누적채무국에게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美國으로서는 유가안정 즉, 하락하지 않는 쪽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하는 高油價가 되면 무역적자가 커지고 高金利制가 심해짐으로써 인플레이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美國경제를 둔화시킬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안정된 석유收入을 확보하기 위해 美國과 사우디는 공통된 利害關係를 추구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I. 油價展望

1. OPEC原油 바스켓價格 18\$/b 유지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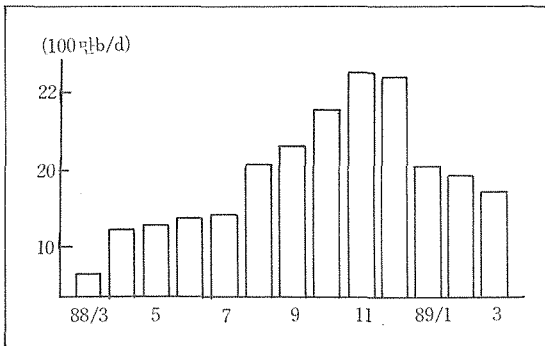
현재 OPEC산유량은 1,940만b/d로서, 작년 11월 총회시의 감산쿼타(1,850만b/d)에 비해 거의 100만b/d나 상회하고 있으나, 이를 작년 3/4분기 평균에 비하면 300만b/d나 적은편이다. 이러한 감산체제협조가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가 유가변동의 포인트이다.

하반기는 원유수요가 상향하는 바, 오는 6월 OPEC 총회는 산유쿼타를 50만b/d 정도 확대할 것이다. 문제는 회원국별 쿼타배정인데, 전후복구가 필요한 이라크와 이란에게 각각 30만b/d씩, 그리고 증산요구가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20만~30만b/d를 더 할당하는 동시에 나머지 회원국은 지금과 같은 비율로 할당하면 혼란없이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 첫째 시나리오의 근간이다.

이제까지 증산경쟁을 되풀이한 OPEC회원국이 심기일전하여 결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86년, 88년의 유가급락에서 받은 충격이 컸다는 점, 둘째로, 이란·이라크 휴전에 따라 회원국간 대립적 분위기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두 번의 유가폭락사태의 주요인은 사우디가 증산했다는 사실이다. 사우디의 산유능력은 700만b/d 이상으로 OPEC중 최대이므로, 「회원국들이 협조노선을 흐트러 사우디를 자극하면 큰 일 난다.」는 인식이 OPEC에 깔려 있다. 그리고 산유국간의 협조를 교란하던 이라크와 이라크가 지금은 정부지출을 계획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전비조달을 위한 석유증산이 필요없게 되었다.

OPEC의 原油生産量



또한 非OPEC산유국(9개국)도 금년 2/4분기의 석유수출을 5%(* 30만b/d해당) 감축하여 OPEC의 감산정책에 보조를 맞춘다. 이런 상태에서 석유수요 신장세는 호조를 보인다. 즉 유럽과 美國의 현경기가 유지되려면 2%의 석유소비증가가 예상되므로, 약 150만b/d 정도로 소폭 증산하면 수급균형이 맞는다.

다만 대폭적 유가인상은 없을 것이다. 원유가격 인상은 선진국에서 인플레이험이 많고 각국 금리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무액이 많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中南美산유국에게 타격이 커진다. 따라서 「유가동향과 국제금융시장과의 관계를 함께 고찰하면 원유 18\$/b선이 양시장의 균형점이 된다」는 분석이다.

2. 수요감퇴로 인해 15\$/b로 하락論

최근의 유가급상승은 OPEC의 감산조치와 北海유전 사고로 인한 산유량감소에 기인한다. 美國에서도 알라스카灣에서의 유조선사고로 알라스카産 원유의 출하량이 60%나 줄었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北海유전생산이 회복되고 알라스카産 출하량도 5월부터 정상화된다.

지금같은 高油價추세가 계속되면 석유수요가 감퇴할 수도 있다. 지난 87년에 지금처럼 18\$/b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美國에서는 重油수요가 20만~30만b/d나 천연가스로 대체되었다.(* 중유소비가 줄었다) 북해원유가 생산회복되고 여기에 美國 및 유럽의 수요감퇴가 더해지면 OPEC총회에서 가령 산유쿼타를 150만b/d 확대한다 해도 공급과잉을 면치 못해 하락시세로 돌아설 것이다.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外貨收入확보를 위해 조금씩 증산했던 것이 OPEC회원국들의 常例이다. 또 이라크의 사우디관통 송유관이 오는 9월 110만b/d 능력으로 완공되므로 자극할당량 확대에 나설 것이다. 이라크가 증산하면 감산협조체제가 흔들린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근간이다.

그래서 배럴당 15달러 선으로 하락해도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협조노선과」로서는 허용범위가 된다. 양국은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석유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석유수요가 감퇴하지 않도록 상대적 저가유지가 그들의 기

본전략이다.

3. 감산 쿼타 유지로 油價상승한다論

이란, 알제리같은 「강경파」들은 산유능력이 적으므로 유가를 올리고 싶어한다. 오는 6월 총회에서 강경파들이 쿼타확대에 강력반대하여 다른 회원국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OPEC 산유쿼타가 현 1,850만b/d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하반기에는 지금같은 상태로 생산량을 준수해 나가면 현재 수요경향으로 보아 150만b/d 정도가 공급 부족 된다. 油價가 대폭 오르면, 종전에는 非OPEC측이 증산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그럴 증산여력이 축소되었다. 최대산유국인 소련조차도 서방에의 수출량이 수년동안 200만b/d 그대로 뿐이면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다.

한편 알래스카灣 유조선사고는 후유증이 보인다. 즉 환경보호단체가 사고 난 발티스港口의 폐쇄를 외쳐대고 있으므로 알래스카原油의 송유관만의 공급은 최대한 잡아도 美國 내에서 20%나 줄어들게 된다. 美國産 원유의 출하감소는 OPEC 및 非OPEC의 감산협조와 함께 유가상승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더욱 오르게 되면 OPEC 내부에서 먼저 「고정가격유지제」로의 복귀를 다시 원할지도 모른다. 지금 각 산유국들은 현물시장체제를 기준하여 수출가격을 정하는 「시장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물시세는 뉴욕등 현물시장에 따라 오름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스파트가격을 바탕으로 기간계약물 가격을 고정화시켜 油價安定을 도모하려는 전략도 있다.

그러나 산유국이 시장연동으로 추이한다는 것은 스파트시대 동향에 맞추어 유가조정을 하지 않을 때, 제품가격도 스파트시세를 바탕으로 하는 歐美系 석유회사에서 반발할 것이 틀림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필연 할인판매하는 산유국이 나오게 마련이므로 시장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고정가격유지제」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OPEC총회가 쿼타문제에 결렬될 가능성도 있어서 산유량확대가 분명치 못하다. 결국 「OPEC 자신이 감산협조 효과에 자신만만해서, 산유량 新쿼타 실시 반년여 만에 그것을 포기할 까닭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 셋째 시나리오의 상승추세지속론이 주장된다. □ 〈日本經濟新聞〉

□ OPEC 동향 □

油價 18달러선 안정때, OPEC 增産 검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石油값이 배럴당 18달러선에서 안정될 경우 석유생산량을 하루 1,850만배럴 이상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루크만 OPEC의장이 지난 4월3일 말했다.

이날 쿠웨이트의 알와탄紙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루크만의장은 그러나 「기준가격이 현재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2개월동안의 생산량 추이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간 「중동경제조사」紙는 3일 현재의 가격수준이 유지될 경우 이란과 알제리 등의 산유국들은 올 하반기에 생산량 확대를 모색할 것이며, 6월에 개최될 OPEC회의에서 하루 1백만~1백50만배럴 정도 생산량 증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